

머리말

미중 패권경쟁의 정보세계정치학

김상배

이 책은 2019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글로벌리더십연습>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된 젊은 지성들의 지적 탐구를 담은 학술보고서이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는 2015년부터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GLP)의 일환으로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2학기에 <글로벌리더십연습> 세미나의 학술보고서로 『신흥권력과 신흥안보: 미래 세계정치의 경쟁과 협력』(사회평론, 2016)을 펴낸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학술단행본을 출판하게 되었다.

학부생들이지만 재학 중에 대학원생에 준하는 지적 훈련을 받고 '공부의 맛'을 알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세미나 수업이었는데, 이번에도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내게 되어 이렇게 묶어서 출판할 용기를 내게 되었다. 아직 지적 훈련기에 있는 학생들의 글이라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의 글 안에 담긴 문제제기의 참신성이나 논문의 완성도라는 점에서 볼 때, 단순한 습작의 수준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은 물론이고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기성학자들에 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자평해 본다.

2019년 2학기 <글로벌리더십연습> 세미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중경쟁'이었다. 최근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경쟁이라는 논제를 차세대 글로벌 리더인 필자들의 관심에 접목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미래의 지평에 담아 보았다. 세계경제의 선도부문(leading sector)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중경쟁을 통해서 필자들이 탐구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 한반도에 덮쳐올 바깥세상의 구조변동이었다.

<글로벌리더십연습> 수업은 강의실과 현장수업을 이어가는 방식

으로 설계되었다. 강의실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기성학자와 전문가들의 글을 읽고 토론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미나와 학회를 찾아 발표와 토론의 현장을 참관했다. 학기말에는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의 물적 지원에 힘입어 책 속에서만 상상했던 연구대상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 필자들이 선택한 현장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선전(深川)이었다.

2019년 12월 18-20일의 2박3일 동안의 학술답사 일정에서 필자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묵직한 지적 충격을 받는 경험들을 했다. 선전 소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선전 지역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유명한 따공팡(大工場), 그리고 최근 5G시대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 기업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라인 등을 찾아서 보고 듣고 말했다. 때마침 선전을 방문 중이던 광저우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경제담당 영사와의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한국어나 영어뿐만 아니라 한중 통역으로도 진행되었던 설명과 토론의 과정에서 달아올랐던 필자들의 호기심과 깨달음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다.

현장답사를 떠나기 전에 문제의식을 다잡았던 필자들의 학적 탐구는 학기가 끝난 후 겨울방학 기간에 짬을 내어 마무리되었다. 필자들이 구해온 '구슬 서 말'을 꿰어서 보배로 엮어낸 '끈'은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정보세계정치학'의 이론과 개념들이었다. 이 책의 본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이나 '3차원 표준경쟁,' 또는 '이익-제도-관념의 구성적 제도주의' 분석틀은 민감한 학술적 감수성으로 기성학계의 논의를 짧은 시간 안에 체득해낸 필자들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

었다. 편의상 미중 패권경쟁을 기술·산업·표준 등과 같은 경제 분야와 안보·동맹·외교와 같은 국제정치 분야, 그리고 담론·규범·매력 등과 같은 사회문화 분야의 셋으로 나누어 필자들이 공동으로 쓴 9편의 글들을 분류했다. 각 부에 나뉘어 실린 글들은 해당 부분의 주제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세 분야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음은 물론이다. 각 부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오늘날 미중경쟁이 어느 한 부문에만 관련된 주도권 경쟁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정치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는 글로벌 패권경쟁의 양상을 지닌다는 것이었다.

제1부 '기술·산업·표준의 미중 패권경쟁'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차세대 자동차(특히 전기자동차) 산업, 핀테크 분야의 플랫폼(특히 모바일 지급결제)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다룬 세 논문을 실었다. 이 세 편의 논문을 관통하는 인식은 오늘날 미중경쟁은 '자원권력'의 관점에서 본 단순한 제품경쟁이나 기술경쟁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는 표준과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양식의 권력경쟁(이른바 네트워크 권력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1장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중국 정부의 역할: 반도체, AI, 5G 통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장형욱)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수행되는 중국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국 정부는 반도체, AI, 5G 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산업 기술을 자국의 저장장 기조를 돌파하고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제1장은 중국 정부가 이른바 '발전지식국가'(developmental knowledge state)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구사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지식 생산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

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우선 거시적 수준에서 중국의 사회 이념과 발전 계획을 조망했다. 사회주의와 국가 발전주의의 역사적 결합 속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발전 계획이 가지는 맥락을 살펴본 후, 반도체, AI, 5G 통신기술 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양상, 집행 조직의 특성 등을 분석했으며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나가는 중국 정부의 역할을 규명했다. 반도체, AI, 5G 통신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신산업의 중추로 기능하기에 이 산업 부문에서 국제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국가는 결국 21세기의 패권국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미비와 단순한 산업 생태계,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딛고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중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기술혁신과 국제표준 선점을 일구어내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장은, 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네트워킹의 역할을 발전지식국가의 '메타 거버넌스'(meta-governance)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는 작업이 미중경쟁의 승패를 진단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2장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미중 패권경쟁: 전기자동차 산업의 3차원 표준경쟁'(정은교)은 전기자동차 산업을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신흥무대에서의 패권경쟁을 다루었다. 제2장은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표준을 장악하려는 경쟁, 전기자동차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표준경쟁, 전기자동차가 미래 도시담론인 스마트시티와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담론표준경쟁의 '3차원 표준경쟁'에 주목한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대표 전기자동차 기업들의 전략의 배경에는 자유경쟁 시스템을 가진 미국과 자국 시장을 보호·육성하려는 중국의 시각 차이가 작용하였다. 한편 배터리 충전방식의 국제

표준을 두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복합적으로 협력과 경쟁관계를 이루는 양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산업의 제도적 지원책으로는 재정적 지원, R&D 투자, 인프라 구축의 세 가지가 있다. 미국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과, 배터리 기술에 집중된 R&D 투자, 민관 협동 방식의 충전소 설치 등의 지원책을 펼친다. 이에 비해 중국은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 다양한 분야의 R&D 투자, 정부 공공사업으로서의 충전소 설치 정책을 모색한다. 최근 중국이 이런 보조금 정책을 폐지해 나가면서,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적할 정도로 성장을 했는지의 결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견된다. 전기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 카, 공유 모빌리티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 핵심 사례이다. 이는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시티의 담론과 연결되는데, 스마트시티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미국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한 신도시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담론 차이는 모빌리티 규범담론의 차이를 야기했다.

제3장 '미중 디지털 금융표준 경쟁과 중국의 핀테크 전략: 모바일 지급결제(TPP) 플랫폼을 중심으로'(김채윤)는 오늘날 핀테크가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 간주되면서, 세계적으로 핀테크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의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제3장은 미중 디지털 금융질서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중국 핀테크의 부상과 확산 및 국제화의 구체적인 동학을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할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이익-제도-관념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구성적 제도주의'의 틀을 원용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핀테크와 모바일 금융 서비스 발전은 국가주도 과학기술 담론과 실용주의 노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경합, 모바일 환경과 핀테크 정책 및 제도의 세 가지 요인들이 중층적

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할 때, 핀테크와 특히 데이터 부문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중 간 자신의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직접적 충돌은 없고 오히려 경쟁적 공존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직접적 충돌이 나타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나타났던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은 역으로 해외에 대한 데이터의 개방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향후 중국 내부에 유입되는 해외 데이터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점차 심화되는 디지털 금융표준 경쟁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디지털 국제결제 표준 문제의 중요성을 재평가함과 동시에 적절한 국제정치적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부 '안보·동맹·외교의 미중 패권경쟁'은 2019년 한 해 동안 미중관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인, 이른바 '화웨이 사태'를 다루었다. 특히 필자들의 관심사는 미국과 중국이 펼쳐나가는 새로운 기술패권 경쟁의 구조 속에서 여타 주변 동맹국들과 '중견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내보였던 대응방식의 내용과 그 차이였다.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인 호주와 영국의 사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에서 보는 일본과 인도의 사례, 그리고 미중경쟁의 구조에서 비슷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 '화웨이 사태와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의 대응: 호주와 영국의 사례'(이수범)는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인 반응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인 호주와 영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대응을 보

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4장은 이러한 정책적 대응을 안보 위주의 현실주의적 접근이나 상호의존 위주의 자유주의적 접근 또는 전형적인 구성주의 접근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원용하여 분석한다. 제4장이 원용하는 현실주의적 구성주의는 주어진 권력 구도 상에서 각 국가가 형성하는 서로 다른 이익 담론이 그 국가의 중견국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견국 정체성은 화웨이라는 타자에 대한 상대적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로 다른 정책 결정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호주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미중 사이의 경쟁과 5G 기술의 산업, 안보 프레임 간의 경쟁이라는 전략적 환경에 동일하게 직면해 있지만,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내부에서 입지를 높이고, 5G 안보 프레임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견국 정체성을 보이기에 화웨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협인식을 가진다. 반면 영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량 역할을 추구함과 동시에 5G 기술에 있어서 산업적인 중요성과 안보적인 고려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으려는 중견국 정체성을 보이기에 화웨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협인식을 가진다.

제5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일본과 인도의 네트워크 전략: 화웨이 사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이수빈)는 일본과 인도가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보인 대응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제5장은 화웨이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을 살펴보는 시각의 정립을 강조한다. 중국은 급속도로 부상하면서 제시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경제적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라고 표현하지만, 미국은 이를 중국의 주변국가 식민지화를 통한 패권 획득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권력 획득을 위해 자국뿐 아니라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자국 주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며, 미국 또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반(反)화웨이 동맹을 동원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5장의 주요 관심은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동맹 경쟁 속에서 나타나는 일본과 인도의 대응방식상의 차이이다. 일본과 인도는 모두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화웨이를 두고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는 아시아의 역내 패권을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응전략상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제5장은 이러한 일본과 인도의 동맹전략의 차이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적용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압박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주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양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은 어떤 길로 나아갈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제6장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경쟁과 중견국 외교전략: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오한결)는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현시점에서 독일과 한국의 외교전략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독일과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은 양국의 경쟁에 따른 구조적 공백을 포착하는 한편, 이러한 외교적 공백을 메우고 자국의 권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현실주의적 접근은 패권 경쟁의 양상에서 주변국들의 대응 양상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제6장은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독일의 외교전략을 탐구하고, 한국의 사례에 가지는 의의에 주목했다. 특히 제6장은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된 4단계의 외교전략 개념을 통해 독일이 취한 중견국 외교전략의 수립 배경과 실제적인 작동 양태를 이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구성에 따른

구조적 공백은 국가의 정치, 안보적 고려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독일에 외교적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독일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자원권력을 보유하고 있던 안보 부문에서 개방적인 플랫폼을 위시한 선도적 이니셔티브를 내세움으로써 네트워크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이러한 독일의 중견국 외교전략은 궁극적으로 중견국으로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 한국의 외교전략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3부 '담론·규범·매력의 미중 패권경쟁'은 인프라, 이미지, 소셜 미디어 등과 관련된 데이터 안보의 문제, 바이오 데이터 분야에서 생체인식(특히 안면인식) 기술의 사례, 그리고 미래 영화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사례에 주목하여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경쟁을 분석하였다. 제3부에 실린 세 편의 논문이 초점을 둔 부분은, 기술·산업이나 외교·안보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담론과 규범의 주도권 경쟁, 또는 보편적 매력발산의 경쟁의 전개 양상이었다.

제7장 '데이터 안보와 미중 담론경쟁: 인프라, 이미지, SNS의 안보화 담론을 중심으로'(이건표)는 최근 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함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기 및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안보가 새로운 사이버 안보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기업이 주도권을 지녔다면, 최근 중국 기업이 성장하면서 데이터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라는 틀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7장은 안보화 이론을 활용하여 데이터 안보 분야에서의 미중경쟁을 분석하였는데, 안보 행위자의 선포, 청중의 인정, 비상행위로 구분되는 안보화 이론의 3단계 분석틀을 원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중국 기업 중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진

출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인 화웨이,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하이 크비전과 다후아, SNS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틱톡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7장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백도어와 같은 이슈로 인해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해외 동맹국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운영을 막는 등의 비상행위를 취하였다. 특히 사례별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미국은 공통적으로 데이터의 유출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안보화의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기업 및 정부의 대응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기업 및 정부는 미국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추어 규범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안보화 관련 쟁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사안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려고 하였다.

제8장 '안면인식 기술과 미중 바이오 데이터 경쟁: 패권-인권-주권의 3차원 게임'(황지선)은 21세기 미중경쟁의 한 단면을 이해하기 위해 생체인식 기술, 특히 안면인식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데이터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중국이 생체인식 분야에서 벌이는 경쟁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 사회, 정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행위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패권, 인권, 주권의 권리 개념의 충돌 양상을 살펴보고 미중 바이오 데이터 경쟁에 있어서 기술표준, 제도표준, 관념표준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안면인식 분야에서 나타나는 '패권의 게임' 속에서 표준을 장악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펼치는 전략과 이에 대한 도전국 중국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프라이버시 레짐에서 나타나는 '인권의 게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다른 인권 담론이 낳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것이 안면인식 기술 발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법안에서 나타나는 ‘주권의 게임’을 살펴볼 때 미국과 중국의 고유한 데이터 주권 담론이 안면인식 데이터 이동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살펴보고, 미중 안면인식 경쟁 양상 속에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 모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패권, 인권, 주권에 있어서 한 가지 행위자의 이해관계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행위자와 권리개념 그리고 목적의 충돌이 미래권력론에 던지는 함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9장 ‘영화산업의 디지털 변환과 미중 매력경쟁: 실리우드와 찰리우드, 그리고 그 사이의 한류’(이성윤)는 기술경쟁 및 표준경쟁과 더불어 미중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매력경쟁에 주목하여 영화산업 분야의 미중경쟁을 살펴보았다. 특히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의 합성어인 ‘실리우드’와 중국과 할리우드의 합성어인 ‘찰리우드’ 개념을 원용하여 미중 매력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모색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실리우드는 마블을 포함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의 흥행을 배경으로 시작되었고, 찰리우드는 완다 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실리우드와 찰리우드는 정보화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영화관 안의 관객들을 넘어 영화관 밖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실리우드 현상과 찰리우드 현상은 OTT 서비스, 전자 상거래,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현재의 실리우드 비전과 찰리우드 비전은 웹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리우드 현상과 찰리우드 현상의 시대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과 유쿠, 아이치이, 알리바바의 경쟁이 벌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타파스와 쿠웨이칸 만화의 경쟁

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류 3.0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웹툰이 가장 적합한 콘텐츠라는 것이 제9장의 인식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서 웹툰을 발전시켰고 웹툰의 영화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웹툰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후 이를 영화화할 수 있다면 한국은 한국과 할리우드의 합성어인 ‘콜리우드’ 비전의 실현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특히 이 책의 작업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9인조 젊은 지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 한기 동안 보여주었던 필자들의 젊은 열정과 지적 의지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의 미완성 초고들을 예닐곱 번 이상씩 읽어보고 코멘트를 주면서도 지지치 않고 새로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열정과 의지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젊은 지성들의 고민의 흔적을 ‘역사’로 기록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리더십연습>의 조교로 참여하고 중국 선전 답사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이끌어준 김지이 씨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을 수 없다. 선전의 여정에 가까이 벗이 되어준 최정훈 씨에게도 감사한다.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에도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GLP)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해준 리더스코즈메틱의 김진구 대표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 일명 SSK)의 지원이 있었음도 밝혀둔다. 끝으로 새롭게 벌이는 지적 시도의 취지를 알아주시고 항상 흔쾌히 출판을 맡아 주신 사회평론아카데미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